

지 상 법 석

성불 자리로 가는 '여로'

**“물에 빠진 아이 구하러 달리는 마음
계정해 삼학으로 승화시키면
누구나 중생심 녹일 수 있습니다”**

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후 아주 초라한 선객으로 주저 앉고 말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허깨비의 놀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선객은 예시당초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채 이른 것처럼 허상에 얽매었거나 정말 오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그 자리를 보임하지 못하고 마음을 흐트려서 다시 선객의 초라한 좌복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신라의 원효 이후 원효를 흉내 내는 원효는 많았으나 원효를 이룬 원효는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있고요, 이것이 삼학입니다. 그릇이 이그러지면 물도 이그러지고 불이 이그러지면 비친 달도 이그러 집니다. 또 그릇은 온전할 때 물이 일렁이면 그 안에 비친 달도 일렁입니다. 반듯한 그릇에 흔들림 없이 맑은 물, 그리고 그 속에 온전히 비쳐 빛을 발하는 달. 이것이 삼학이니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반듯한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 속의 물과 거기 비친 여러분의 달은 어떤 모양인지 잘 살펴 보시란 겁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달리는 그 공덕을 쌓자는 겁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큰 수행인 겁니다. 마음을 본다고 '이렇고' 화두만 참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겁니다. 배우는 마음 속에 부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처를 오래오래 자기화시키는 것이 열불 참선으로 성불 하는 것과 다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에 이르러 보면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듯이 말합니다.

한 공덕으로 마음 닦아 부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우리의 마음에 부처와 중생이 함께 있다면 항상 밝게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밝은 마음이 부처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기쁘고 즐거우면 남도 좋게 됩니다. 저 거룩하고 자애로운 부처님 모습에서 고달픈 중생의 시름이 봄눈 같이 녹듯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드러내 남의 마음속 부처를 일깨우는 일도 큰 보시행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표정이 어둡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흐리면 그 세상도 흐린 것이고 그 흐린 곳은 자유에 가까운 곳입니다. 나 한사람이 밝은 모습을 지으면 내가 선 자리가 극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 역시 수행이요 성불로 가는 길임을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웃는 사이만큼의 부처 성품이 밝은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데 왜 서로 으르렁 거려며 굳은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배우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좋은 말 좋은 표정 좋은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며 함께 부처가 될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되는 여로에서 일탈

'배우는 마음' 이 극락... 생활속에서 늘 실천하길 1초씩 1분씩 부처마음 늘려가면 청정자성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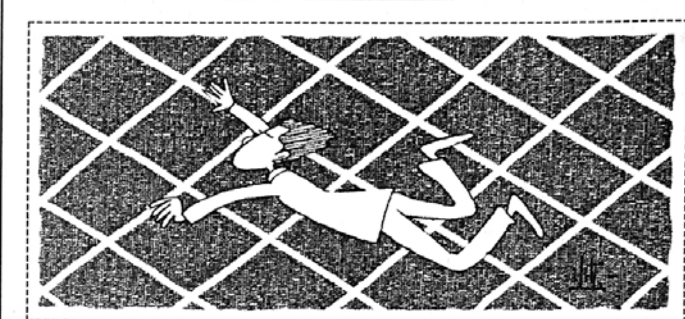
말표 현되는 것도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이른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 역시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부처의 성품을 키워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삼학은 수행과 구경열반을 아우르는 도리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향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열린 것입니다. 정이란 그 열린 틀 속에서 그야말로 청정무구한 자성 즉, 부처의 성품을 보는데 필요한 담음의 과정입니다. 그 담음을 통해 부처성품을 보는 지혜의 품을 갖추는 것이 해입니다. 이 세가지는 따로따로 이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리에서 같이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이 하나 있고 그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에는 달이 비치고

졌습니까. 아까 얘기 한대로 조금씩 부처의 성품을 늘려 가는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삼학이 닦여 지는 것이니 그리 어렵게 여기고 겁낼 일은 아닙니다. 자꾸자꾸 1분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부처를 이루는 방법은 열불이어서 좋고 참선이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건성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에서 피가나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극진히 열불주려 하는 가운데 중생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선도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며 매를차게 하다보면 청정한 소식이 올 것입니다. 참선을 하되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은 자칫 혼자 공부하다가 잘못된 자리에 이르러 가는 게 찻다'라고 오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 사람이 길을 잘 안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편 말고도 재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방편은 너무나 많습니 다. 승속에 수행의 방법이 다를 수가 없겠지만 요즘 같이 복잡한 시대에 세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 행하는 것이 불자의 바른 자세 일 것입니다. 세간의 불자가 삶 속에서 해야 할 수행, 그것은 다름아닌 공덕 배움이입니다. 거듭 얘기 하지만

**“내 얼굴이 기쁘고 즐거우면
남도 좋게 됩니다
내 마음의 부처 드러내
남의 마음속 부처 일깨웁시다”**

를 만나겠습니까. 중생의 마음은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이 극락인데 부처의 마음을 키워 가는 자비희사의 보살행을 게을리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기록된, 법당에 모셔진 지장보살 관음보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가 현세의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길 서원하고 그 원행을 실천 하라는 것입니다. 내생에 극락에 나갈 기원하는 것 보아야 현세에서 보살도를 실행해 보살의 공덕을 쌓는 것이 더 큰 성불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제막약사(諸惡莫作)하고 중생보행(衆善奉行)하라

된 행위로 지옥의 땅을 넓혀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분 부처가 되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 2분 부처가 되도록 노력 하는 사이에 자신의 청정한 모습이 보여 질 것이니 배 풀고 정진하며 나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까. 종교식멸처(衆苦息滅處)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 치문시하처(且問是何處) 배옥공심문(背欲空心門) 중생 고통 영원히 멸한 곳 천지를 떠난 오직 한 근대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가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운곳이 거기.



물리적 진공에 에너지 주었을 때 입자-반입자의 쌍이 생성되는 쌍생성,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신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쌍소멸의 현상만으로도 반야심경이 표현한 공불이색 색불이공은 더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잘된 표현이지만 쌍생성과 쌍소멸은 물리적 진공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상중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진공은 기술(記述)이 불가능 정도로 복잡한 상태에 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몇가지 종류의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소립자마다 짝이 되는 반입자가 있는데 입자-반입자가 결합하여 서로서로 공인 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 진공이다. 이 그물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창조와 소멸을 되풀이 하고있다. 끝없이 쌍생성과 쌍소멸도 일어난다. 그 뿐 아니라 갖가지 종류의 입자와 반입자가 제멋대로 생겨났다가 제멋대로 사라

상입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색계의 입자 모두는 다시 철사줄에 비유한 가상입자를 통해 진공의 그물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입자는 단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리적 진공,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
눈으로 보는 색계 절단된 단면에 불과

지는데 단지 인간에게 관측되지 않고 그 그물망 속에서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그물망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끊어지는데도 없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된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다. 강한 에너지를 주면 이 그물망의 한 곳을 절단할 수 있는데 절단면이 바로 우리가 보는 물질계를 이루는 입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철사줄로 된 그물망을 예로 들겠다. 철사망의 한곳을 잘라 철사를 구부리면 두개의 면이 나타난다. 한쪽면이 입자이고 다른 면이 반입자다. 실제의 그물망은 두개를 잘라 철사조각 하나를 완전히 떼어낼 수가 없다. 철사조각 하나를 떼어냈다고 가정 하더라도 철사조각 중간부분이 다시 다른 철사줄로 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가상입자(假想粒子, Virtual Particle)라 부르고 우리가 보는 물질계 즉 색계(色界)를 이루는 입자를 그냥 입자라 부를뿐 가상입자나 실제입자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색계를 이루는 입자도 다른 입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

단면에 불과하다면 연결되지 않고 존재하는 절단면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물망의 모델대로 입자는 가상입자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입자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 즉 색계는 다시 진공과 가상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대략 50년전 쯤의 일이다. 이것을 최초로 계산한 사람은 램(Lamb)인데 색계와 진공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램이 발견한 효과를 램-이동(Lamb Shift)이라 부른다. 색계가 단순히 그물망의 절단면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색불이공이라 불러야 할까? 공불이색이라 불러야 할까? 이 두마디의 말은 어딘가 부족한게 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냥 진공에나 있는 하나의 절단된 자극에 불과하다. 그러나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일 수 밖에...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물망의 모델을 표현할 말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떠나 달리 찾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반야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음을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철보로 세상을 장식하는 것보다 한자락 법보시가 참 공덕이 됩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 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 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목포 · 전화 0631-281-2534

공주 · 전화 0416-55-0020

사천 · 전화 0593-32-5160

청주 · 전화 0431-53-4330

여주 · 전화 0337-84-0797

속초 · 전화 0392-31-0543

강릉 · 전화 0391-647-931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범고)
 - 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 작법반 : 요장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5월 1일 ~ 5월 27일
- 개강일시 : 1996년 5월 27일 오후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3층
전화 : 741 - 0495 ~ 6

海 東 佛 敎 大 學 院
儀 式 教 育 院
學 長 張 二 斗
院 長 鄭 大 隱

六庚申道通 제2회 법회안내

금년 丙子年 六庚申道通 제2회 기도법회가 양력 5월22일(음 4월 초6일 해시)에 입제하여 5월23(음 초 7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은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용맹정진수행인 육경신도통수행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고양이발로 달속에 있는 토끼뽕을 잡는 거와 같거늘 무엇을 말하랴마는 대도의 근본인 도통을 할려면 매사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시방법계가 장애아닌 것이 없으며 그 장애를 이기는 정진기도가 바로 육경신 기도로써 본인 자신들에 덕망을 쌓아온 기근에 맞게 도통문에 들어가 무불통을 하시어 신선의 경지에 들어가 덕망 높은 선지식들을 익히어 도인에 길을 걷는 도학들에게 많은 지도를 하시어 도인세계의 저변화대는 물론 무질서한 도통인들의 밝은 세계를 이루워 남북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와 2000년대의 범태평양시대에 모범된 질서속에서 도덕성회복은 물론 앞서는 도인상을 심어 주시다.

◇입제일:1996년 5월22일(음 4월 초엿새 6일) 밤 10시
◇해제일:1996년 5월23일(음 4월 초이레 7일) 밤 해시
◇회 비:5만원
◇온라인:농협 029-01-167866 국민은행 039-21-0511-461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821-6622 ·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약사선원장 태일거일거사 합장